

#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예수 님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1-11; 16, 26, 31-51

2022년 5월 29일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에 있는 52개의 질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2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 질문 22: 왜 구속주가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온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 소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이니 사무엘상 17장부터 읽으니 잘 들어주세요.

## 사무엘상 17:1-11; 16, 26, 31-51

1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고와 에베스담밈의 아세가 사이에 진 쳤고

2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엘라 골짜기 근처에 모아 반격하였다.  
3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 맞은편에서 서로 마주하니라  
4 그 때에 가드에서 온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대열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니  
그는 키가 9피트가 넘었습니다!  
5 그는 놋 투구를 썼고 그의 놋 갑옷의 무게는 125파운드였습니다.  
6 또 놋 다리 갑옷을 입고 어깨에 놋 창을 메고  
7 그의 창자루는 무거우며 베틀채 같으며 끝이 쇠창날의 무게가 15킬로그램이나 되었다.  
그의 갑옷을 든 사람은 방패를 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8 골리앗은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왜 다들 싸우러 나오세요?” 그는 전화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의 용사지만 당신은 사울의 신하일 뿐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여기로 와서 나와 싸워라!  
9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이면 당신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10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시오!”  
11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크게 떨었다.

16 사십 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사람의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필쩍 뛰었다.

26 다윗이 곁에 서 있는 군인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31 이에 다윗의 질문이 사울 왕에게 보고되매 왕이 사람을 보내어  
32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와 싸우러 가겠어!”  
33 ”웃기지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습니다.”

34 그러나 다윗은 고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서 어린 양을 훔치러 올 때에  
35 내가 몽둥이로 그 뒤를 쫓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노라  
동물이 나를 공격하면 턱을 잡고 곤봉으로 죽입니다.

- 36 내가 사자와 곰에게 이렇게 하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행하리니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하였음이니라
- 37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사울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좋아, 가자.” 그가 말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 38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 곧 놋투구와 사슬 갑옷을 주었습니다.
- 39 다윗이 그것을 입고 칼로 그 위에 띠를 띠고 한 두 걸음 물러서서 그 형상을 보았으니 이는 그가 전에 이 런 것을 입어 본 적이 없었더라  
그는 사울에게 “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벗었습니다.
- 40 그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져다가 양치기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양치기의 지팡이와 물매만 들고 계곡을 건너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 41 골리앗은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고  
42 이 붉어진 얼굴의 소년을 경멸하며 비웃는다.  
43 그가 다윗을 향하여 가로되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로 내게로 오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윳을 저주했습니다.
- 44 ”이리로 오라 내가 네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소리쳤다.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칼과 창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이기시리니 내가 너를 죽이고 네 목을 베리라  
그러면 내가 네 사람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라!
- 47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함을 알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전쟁이니 그가 너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 48 골리앗이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으러 급히 달려갔다.
- 49 목자의 자루에 손을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가라앉고 골리앗은 넘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 50 이에 다윗이 칼이 없었으므로 물매와 돌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51 이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니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돌이켜 도망쳤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파트 A. 다윗이 한 일과 그 의미.

파트 B.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 파트 A. 다윗이 한 일과 그 의미

나는 이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것입니다: 사람, 적, 문제, 승리.

### 1. 그 남자.

David는 가족의 막내아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장자나 장자 대신에 막내 아들을 택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그의 가족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모두 똑똑하고 용감한 젊은이로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앞으로 보게 될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 2. 적.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하고 거만하며 무서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골리앗도 하나님 자신의 적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주요 신인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곤과 신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거짓 신과 유일하신 참 신은 각각 챔피언으로 대표됩니다.

두 챔피언은 모두 그의 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인간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 3. 문제.

David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문제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 "웃기지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은 확실히 다윗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43-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 그가 다윗을 향하여 가로되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로 내게로 오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44 "이리로 오라 내가 네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소리쳤다.

아무도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인가요? 그것이 문제라면 아마도 해결책은 David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디즈니 영화 버전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월트 디즈니는 "우리가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 David가 "그의 마음을 따르고" "자신에게 진실한" 디즈니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꿈을 쫓고" "자신 안에서" 승리할 용기를 찾은 이야기의 교훈인가?

아니요, David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의 원천이다.

### 4. 승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윗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첫 번째 것입니다. 골리앗 문제의 해결책은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거나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약점과 취약성

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아들이 골리앗과 같은 인간 탱크를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친구 여러분, 믿음은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함을 붙잡는 약함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자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는 당신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48 *”골리앗이 공격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그를 맞으러 급히 달려갔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에 빠진다. 전투는 빠릅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쉬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후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한 일을 소리 지르며 축하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신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45-4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

*그러나 나는 하늘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이기시리니 내가 너를 죽이고 네 목을 베고...*

47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함을 알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그가 너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전쟁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중단하려면? 때때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 그 중독은 당신의 골리앗입니다! 강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내 진정한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계속 건너편에 거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여기, 내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처럼”*만이 내 인생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면 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을 행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항상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만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도 없고 희망도 없이 혼자이고 패배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친구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과 승리와 새 생명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 **파트 B.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당신의 삶에서 승리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때 일어납니다. 승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견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할 때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구절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용사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패는 싸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이 졌다면 온 군대가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죄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아담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12에서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맙게도 예수님은 아담이 망가뜨린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자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악과 죄의 챔피언인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예

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악과 싸웠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18 아담의 한 가지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19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강한 거인을 죽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다윗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은사와 능력과 힘을 믿는다면 나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배트맨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빈입니다! 당신은 루크 스카이워커나 레아 공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Ewok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교훈입니다. 다윗이 결점이 있는 영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만화책 슈퍼히어로가 아닌 성경 속 영웅의 말입니다. 시편 51:10-12을 들으십시오.

“10 하나님여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고 내 속에 충성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겸손과 의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겸손하고 의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구하노라.”

또한 다윗은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웅으로 믿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 대신에 자신을 상상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



기의 어딘가에 있다면, 당신과 나는 실제로 전투를 지켜보는 군인입니다.

군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다윗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무력하게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우리의 대표자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사망과 악과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힌 것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와 용서와 새 생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대리자로 믿었습니까? 당신은 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와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을 그분의 제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부활과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는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거리에서 춤추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기를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주에 우리 자신의 싸움에 맞서기 위해 오늘 밤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그들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이것이 여호와의 싸움이니라”고 그가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확신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연약함과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웅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